

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

- 전국 각지 30여 개 ‘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’에 추석 위문 활동 시행
-공단 33개 소속기관 임직원 참여

한국장애인고용공단(이사장 이종성)은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본부와 고용개발원을 포함한 전국 32개 소속기관이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.

위문금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, 지역 상생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전달됐다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소속기관별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찾아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22일(화)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‘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’를 방문해 본부 및 고용개발원 임직원이 모금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전달했다.

이 이사장은 “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	책임자	실 장	이영우 (031-728-7026)
		담당자	과 장	정승희 (031-728-7287)